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도시로 탈바꿈’ 신세계 3조 투자

광주 광천터미널 인근이 미래형 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신세계와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결과 대시민 보고회 및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는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 개발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 1497억원을 광주시에 납부하고 3조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투자해 백화점, 버스터미널, 호텔, 공연장, 업무·주거·의료·교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광주 대표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신세계가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의 특화디자인은 세계적 건축·도시계획·디자인 전문기업 네덜란드 아카디스(Arcadis)가 수행했다.

신세계가 제시한 프로젝트 구상인 ‘더그레이트 광주(The Great Gwangju)’가 공간적으로 구체화 됐다.

사업 기간은 2026~2033년이며, 202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35층 규모 180m 높이의 버스터미널 빌딩과 42~44층 규모의 복합시설 빌딩 4개동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 2033년까지 2단계로 터미널·호텔·공연장·업무시설이 들어서는 터미널빌딩과 주거·의료·양로·교육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시설빌딩 4개동을 신축한다.

광주시는 터미널빌딩 공사기간에 맞춰 현재 위치의 광천버스터미널을 일시 폐쇄하고 임시 버스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터미널 위치와 운영계획은 현재 전문가 용역을 통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버스터미널은 기존 대비 면적이 1.6배 확대돼 대합실과 시민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이동 동선도 최적화한다.

지상 1층 쉼터광장과 지하 1층 대합실이 연결된 개방형 구조로 조성되며, 지하 2층에는 대합실·승하차장, 지하 3층에는 고속·시외버스 차량대기를 위한 박차장, 지하 4층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터미널 지하 1층에는 약 500여m 길이의 보행 연결공간이 조성돼 백화점, 터미



광주 광천터미널 개발 사업 추진. 신세계가 제시한 프로젝트 구상 ‘더그레이트 광주(The Great Gwangju)’

사진=광주시청제공

2026~2028년 버스터미널·복합시설 빌딩 건립

2028~2033년엔 주거·의료·양로·교육시설 신축

널, 주거·의료·교육시설을 하나의 동선으로 잇는다.

신세계는 이 공간을 전라도의 맛과 멋을 담은 먹거리·문화 공간으로 특화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터미널빌딩 5~6층에는 650석 규모의 가변형 무대와 객석을 갖춘 호남권 시그니처 공연장이 들어선다. 서울 남산 신세

계 트리니티홀을 모티브로 클래식·뮤지컬·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최급 음향시설을 갖춘다.

23~35층에는 200여 실 규모의 특급호텔이 들어서며, 하이엔드 컨퍼런스 시설을 갖춘 국내 5성급 기준으로 조성된다. 공연장·백화점과 연계해 광주의 새로운 마이스(MICE)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호텔 옥상 180m 높이에 무등산과 광

주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조성되며, 백화점 구관 외벽에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된다.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7~22층에는 ‘포레스트 라이브러리(책거리)’와 최신식 ‘3D 멀티플렉스 영화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가상현실 스포츠 관람시설 등이 들어선다.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30년 전인 1995년 업계 최초로 현지법인으로 설립돼 광주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성장했다”며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백화점을 광주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투자 등 앞으로 광천 일대는 주거·상업·교육·의료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 콤파트시티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부강한 광주전남 새 역사의 원년!



광주시, 시민과 함께 ‘통합특별시’ 미래 설계

19차례 공청회·17차례 간담회 열어 주요 쟁점 점검

광주 정체성·재정·교통·복지·생활 변화 등 직접 소통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권역별·직능별 시민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36차례 열어 통합 이후 시민 삶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를 19차례 열고, 시민·사회단체·전문가·직능별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구청장, 역대 시의회 의장단 등과 17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지금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각 계각층과 폭넓은 소통을 진행했다.

그동안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기존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일수록 신중하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특히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5개구 자치구 권역별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인한 광주 정체성 약화 우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 논의의 속도와 절차 ▲최대 20조원 규모로 제시된 재정지원 활용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광주시는 통합 이후 광주의 법적 지위가 특별시로 격상돼 권한과 위상이 오히려 확대되며, 기존 광주광역시의 권한과 사무는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5·18민주화

등을 바탕으로 한 민주·인권·정의의 광주정신도 제도적으로 계승돼 광주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또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 시·도의 공동 추진 의지, 정부의 재정 지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이 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시기라는 점도 밝혔다.

직능별 시민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환경 보전 ▲산업생태계 확장 ▲여성 일자리 정책 방향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 활용 ▲광역 교통체계 구축 ▲주민자치 권한과 재정지원 확대 ▲돌봄과 공공의료 역할 강화 ▲청년 일자리와 교육 여건 개선 ▲체육계 고용과 예산의 안정적 유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별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 차이를 고려한 정책 추진과 통합 이후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2월 특별법 통과 전까지 법안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주요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지속 점검해 시민 의견 수렴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밖에 ‘광주전남 통합도민과의 상생토크’, ‘전남 서남권·광주권·동부권 순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시도민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다.

/전광훈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